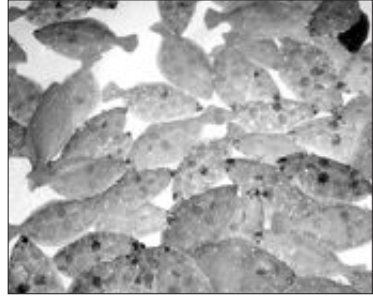


전 남

성장률 30% 빠른 '친환경 납치' 개발

우이도 砂丘 사라져간다

양식생산 원가 대폭 줄고 질병에도 강해 수산과학원 보급 ... 연 600억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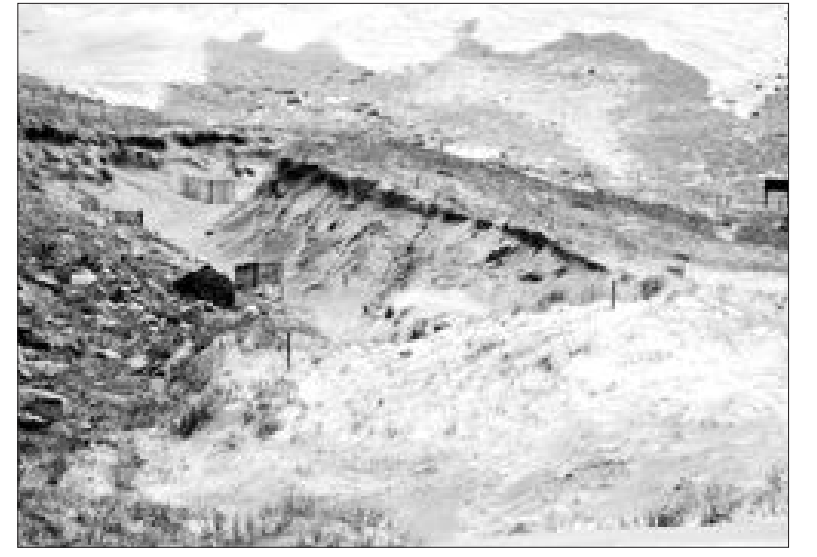
세계 최초로 성장률 30% 이상 빠르고 체형이 개선된 납치 신제품(사진)이 개발돼 양식 현장에 보급될 전망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납치육종 연구에 착수해 최근 일반 납치보다 30% 이상 빠른 성장으로 자연산과 유사한 체형을 가진 납치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 양식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단가의 상승, 값싼 수입활어의 증가, 시장가격의 변동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잦은 질병발생으로 인한 집단 폐사와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과다한 사용 등이 양식어류의 불신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이 외면해 양식산업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종연구센터 이정호 연구사는 "우량 납치품종의 개발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납치 종자국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육종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양식산업에 과학적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5년간 출입통제 허사 ... 실효성 논란



오는 5월 보호 여부 결정

'바람과 모래의 조각품'으로 일컬어지는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모래언덕(砂丘)이 수년간의 생태계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심각한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이도 사구의 모래유실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원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모니터링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출입통제에도 모래가 쌓이지 않고 사라지는데다 사구식물이 남아있는 모래언덕으로 번지는 등 사구의 생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일반인 출입통제가 오히려 사구의 훼손을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주민 김모씨는 "과도에 밀려온 모래가 북서풍을 타고 사구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뒤쪽에 무성하게 자란 풀 때문에 모래 이동이 차단되면서 정상 부분에는 풀 등이 노출돼 있을 정도로 훼손이 심각하다"며 "특히 사구입구는 사구식물이 번지면서 더욱 좁아져 있고, 뒤쪽에는 모래 유실로 계곡이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안 우이도 모래언덕이 지난 2006년부터 일반인 출입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이에 대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사구식물이 모래의 이동을 방해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부사무소 관계자는 "순비기나무를 비롯해 톨보리, 좁은잎 사초 등 사구식물이 자라면서 모래가 유실되는 정도를 막아 줘야 한다"며 "풀을 베어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사무소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생태조사 모니터링이 오는 5월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잠정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사구식물을 일부 제거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시행할 지와 출입통제 지속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이도 사구는 높이 70~80m, 폭이 밑쪽 20m 위쪽 50m, 경사 70~80도로 동양최대 규모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명품 신안란" 구경 오세요 20일부터 전시회

'제3회 신안(蘭) 연합 전시회'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신안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안군에서 활동중인 애란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출란 300점을 비롯해 수석, 신안군 관광사진, 톨립사진이 함께 선보인다.

또 신안군 관내에서 활동 중인 지역 동호회에서 도서 지방에 자생하고 있는 원예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을 소재로 한 분재와 야생화를展出 전시한다.

그동안 '화화소심 보름달' 등 원예적인 가치가 높은 명품 난을 배출해 왔던 신안군에서 올해에도 어떤 작품이 출품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은 자생 한국출란의 보고"라며 "이번 전시회는 신안군 난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영터리 석면 철거 작업. 합평축협이 최근 합평을 합평천치한우프라자 부지내 석면이 함유된 건물을 철거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망 등을 설치해야 하나 축협 측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장성 나노기술산업단 조성 활기

郡, 토지수용비 572억 확보 ... 올부터 보상

그동안 정체됐던 장성군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기를 찾게 됐다. 장성군은 "최근 열린 국토해양부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에서 장성 나노산단이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포함돼 토지수용비 572억원을 확보,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

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맺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 악화와 토공과 우공의 합병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보상을 하지 못해 사업이 차질 피일 미뤄져 왔다. 앞으로 나노산업 조성사업은 LH 공사 토지은행에서 비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승인을 받아 토지 기본조사, 보상 공고, 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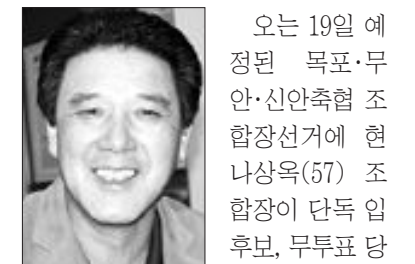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월 21일~31일 개최

'제9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16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는 유기농 생태전반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인 만큼 박람회 주제를 '그린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로 정하고 농업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 제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2012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프레 국제농업박람회' 형태로 열린다. 전시관을 생명을술관, 유기농

목포·무안·신안축협장 나상옥씨 당선



오는 19일 예정된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선거에 나상옥(57) 조합장이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확정됐다.

무투표 당선을 통해 4선에 성공한 나 조합장은 "신안·일로 우수장을 확충, 송아지부터 고기소 등에 대한 중간유류 마진을 최대한 줄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조합장은 전남 서부권 8개 축협으로 구성된 '녹색한우사업단' 대표와 전국 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효상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빌딩(임대용.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월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재테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TEL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할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양광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구함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건평	감평가	최저가
영암군	신안읍	109/33	1억3천	9천1백
	홍성읍	112/34	1억3천	9천3백
	홍성읍	211/84	4억5천	3억1천
	진월읍	114/24	1억5천	1억9백
목포시	학동	158/48	2억2천	1억5천4백
	홍성동	188/57	3억3천	2억2천4백
	신안동	158/48	2억4천	1억8천4백
	우산동	224/66	1억9천	1억3천3백
무안군	신안읍	158/48	1억3천	8천7백
	합동읍	122/27	1억4천	9천9백
	합동읍	198/33	1억2천	8천4백
	합동읍	112/34	1억3천	5천4백
서구	비룡구	198/33	1억2천	8천4백
	합동읍	112/34	1억3천	5천4백
	합동읍	198/33	1억2천	8천4백
	합동읍	112/34	1억3천	5천4백